

# 유통업계, 언택트 집콕족 증가에 3분기 실적 대체로 맑음

롯데쇼핑, 당기순익 30억 흑자전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큰폭 성장세  
이마트, 2분기보다 실적 개선 기대  
홈쇼핑업계, 모바일 쇼핑 성장견인

코로나19 속에서도 유통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맑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주)은 2020년 3분기 매출액 4조 1059억 원, 영업이익은 1111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0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롯데쇼핑 매출은 재택 근무 등 실내 생활 증가로 인해 식료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할인점 기존점 매출이 신장했고, 가전 및 건강 상품에 대한 수요 늘어나며 전자제품전문점과 홈쇼핑이 롯데쇼핑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할인점은 3분기 매출 1조 5950억 원, 영업이익 320억 원을 기록했다. 명절 세트 판매 호조 등 신선식품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기존점 매출이 신장했으며 부



롯데유통사업부문 코리아세일페스타

/롯데쇼핑

진점 영업종료 등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확대됐다. 슈퍼는 매출 45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30억 흑자전환했다.

홈플러스도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꾸준히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신장은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1~2%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10월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의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객 당 1회 쇼핑 시 구매금액을 일컫는 객단가의

상승폭도 크게 올라, 연평균 4.5% 수준이었던 객단가 신장률이 올해(10월 현재)는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마트 또한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에 따라 4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쇼핑업계도 건강식품과 F/W 패션 상품 판매로 호조세다.

롯데홈쇼핑은 2020년 3분기 매출 2580억 원, 영업이익은 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0%, 18.7% 신장했다. 헬스케어 등 고마진 건강상품과 직매입 상품 수요 확대, 해외여행 등 저마진 상품 판매 감소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 ENM 커머스 부문은 매출액 3443억원, 영업이익 424억원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식품, 리빙, 유아동 등 언택트 수요 상품군의 집중 편성, '더잇지', '오

덴세', '시크릿' 등 자체 브랜드 취급고의 증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매출 강화가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4분기에는 패션, 리빙, 가전을 중심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자체 브랜드를 늘리는 한편, 모바일 플랫폼 개편과 디지털 전용 상품의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GS홈쇼핑은 2020년 3분기 1조890억원의 취급액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868억원으로 2.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83억원으로 94.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8.5% 증가한 299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이 6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신장하며 전체 취급액을 견인했다. 모바일 쇼핑이 전체 취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TV쇼핑 취급액은 36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쇼핑은 789억 원을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에 5G 터진다

국립해양조사원, SKT와 협력  
과학기술에 위성 통신망 구축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최남단 해양영토인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2G급 위성통신망을 5G급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이고 신속한 통신환경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술은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 등 해양·기상현상을 감시하고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해양과학 연구거점으로, 지난 2003년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수중 암초에 구축됐다. 이 위치는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으로, 태풍의 세기와 경로 예측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지에는 현재 19종, 31점의 해양·기상 관측장



SKT 엔지니어들이 최남단 이어도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술의 5G 기지국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수은, 염분을 비롯한 8개 관측항목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에는 관측을 위한 CCTV가 3대만 설치되어 있어 주변해역이나 사고발생 취약시설(발전기, 유류시

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등 원활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CCTV를 증설하더라도 위성통신 속도제한으로 고화질 영상자료 등을 제대로 전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2019년 4월부터 SK텔레콤과 협력을 추진해 이어

도 과학기지에 5G급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통신 구성도, 자료전송 체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술기에 5G급 고속 위성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과 위성통신 기반시설(안테나, 출력장치 등)을 설치하고 각종 성능시험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료 전송과 HD급 영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기지에 체류하는 연구원들이 원활한 통신을 통해 긴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기반 고화질 CCTV 7대를 증설해 실내 모니터링은 물론, 주변해역과 화재 감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 CCTV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 기기에 문제 발생 시 원격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후 관측장비까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해 효율적으로 기지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

## 코트라 USMCA 원산지 규정 유형별 해설서 발간



KOTRA(코트라)가 법무법인광장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를 발간했다. 지난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코트라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USMCA에 담긴 원산지 규정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기업의 유형별 북중미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이 주도한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회원국의 북미 역내산 사용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분야에 도입된 세 가지 규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시장에서 완성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역내가치비율(RVC)을 75%까지 높여야 한다. 기존 NAFTA는 62.5%였다. 또한 자동차 생산용 철강·알루미늄의 70%는 북미지역 생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완성차 한 대에 투입되는 노동자 임금의 45%를 시간당 16달러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노동가치비율(LVC)도 새롭게 도입됐다. 모두 미국의 자동차 부품·철강산업에 유리한 조건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북미 자동차·부품 수출은 271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멕시코 등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수가 80개에 달하는 만큼 USMCA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빠른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ysw@

## 김장철 맞아 배추·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20% 할인

농식품부 '농할갑시다 김장편' 행사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정부가 배추와 무 등 김장채소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12월 2일까지 지역별 김장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농할갑시다 김장편'이라는 이름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별 김장 시기는 수도권·중부권은 11월 중순~12월 상순, 남부권은 12월 상순~12월 하순이다.

할인행사 기간 중 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친환경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약 3500여개 매장에서 김장에 필요한 각종 채소(배추, 절임배



지난 4일 경남 거창군 고제면 지경마을 해발 700m의 오세일 씨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가을 김장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거창군

추, 무, 고춧가루 등)와 돼지고기(앞·뒷다리살, 삼겹살 등) 등 농축산물에 대해 20% 할인판매한다.

참여 유통업체는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슈퍼와 마켓컬리, 우체국몰, 포스몰 등 온라인 쇼핑몰,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등 친환경전문점, 완주·순천·나주 등 로

컬푸드 직매장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 30일부터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농축산물 할인 캠페인'을 진행 20%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매장, 지자체 온라인몰 등에서 김장 채소 외에도 농축산물 구매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11월 30일까지 농축산물 구매 시 20% 할인 제로페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제로페이 공식블로그나 콜센터(1670-05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권제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김장채소 할인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해소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